

“남북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건설하겠다”

■도 관련 공약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6일 당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됨에 따라 도 관련 정책이 그가 내용을 대선공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후보의 도 관련 정책은 그가 지난달 14일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기본 골격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그는 강원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기조가 계속되는 한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는 영원히 반쪽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 평화가 곧 한반도 평화이며 강원도 발전이 한반도 활력이라는 인식

남북경협 통한 한반도 평화·공동 성장의 전진기지화

금강산관광 재개·춘천~속초철도 등 인프라 확대 강조

아래 정책비전으로도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구체적으로 4개의 기본 줄기를 축으로 한 도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남북 강원도를 ‘남북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북경협을 통해 강원도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성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강원 공동사업으로 이익 극대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이

는 앞서 말한 ‘남북협력성장 특별지역’ 이전에도 주민 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먼저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는 공동사업 유형으로 남측의 어선과 어업기술을 북한에 전담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업쿼터를 우리 어민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산림자원과 기름,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남북한 수자원 공동관리 사업 구상도 여기에 포함됐다.

셋째,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한 평화 정착과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동응원을 비롯해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코치진 파견과 장비 지원, 합동훈련은 물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을 때 금강산에 아이스링크 건설 등 관광자원화 방안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강원도를 동북아 교랑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대륙의 관문 강원도를 관광, 물류, 생태, 환경, 에너지의 동북아 교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 후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금강산·DMZ·설악산·평창

을 잇는 연계 관광단지를 조성해 국제관광지로 발전시키고 교통인프라 차원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도 약속했다.

또 남북과 러시아 3자 간 동해선-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해 동해안에서 유럽으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삼척의 LNG기지를 가스관 및 슈퍼그리드 사업과 연결해 도의 편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성에서 인천 강화까지 점령지역을 동서로 이어주는 동서평화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토대로 DMZ 생태평화 관광의 인프라를 만들어 도 발전의 기틀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소득 두배 행복 두배 강원도 반드시 성공”

2012 강원 경제인 페스티벌

江原日報社·하이원리조트

김상표 도경제부지사 특강

김상표 도경제부지사가 제시한 도정 목표는 ‘소득 두배, 행복 두배 강원도’였다. 2020년까지 잘 정돈된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실천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러내면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지난 14일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한 김 부지사의 특별강연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 도 경제부지사로 취임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울 듯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강원도 경제의 발전전략을 튼튼히 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앞으로 강원도가 치러야 할 굵직한 행사가 많은데, 이를 활용한 경제발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단순한 국제 이벤트가 아니라 강원도가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또 요즘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기가 매우 악화되면서 국내 경기도 수년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내수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처방전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기

관이 연구를 통해 수십조원의 효과를 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올림픽 효과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치를 수 있는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설상경기가 있어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이뤄집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역시 산간지역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SOC(사회간접자본)입니다. 수십년 동안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각종 도로망과 시설이 건립되면 강원도 발전은 가속화될 겁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과 여주-원주수도권 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우물 정(井)자형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강원도 발전전략도 새롭게 짜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도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산업의 고도화입니다. 강원 경제는 현재 전국의 3% 수준입니다. 규모가 작는데 제조업 기반까지 취약하지요. 이런 산업구조를 확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도는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바이오와 의료가, 신소재 등을 적극 육성해 왔습니다. 바이오와 의료가의 경우 이미 지역과 연계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를 특화산업



도 산업의 고도화 가장 시급 동계올림픽 계기 SOC 강화 청정 이미지 연계 산업 발전

과 연계해 웰빙 농축수산, 생활의료기기, 그린에너지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동북아 경제권의 기반을 구축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은 이미 북방루트 개척에 나선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 동해안을 신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 국제적 정세를 고려하면 지역의 힘만으로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동북아 경제권 확보하는 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미 중국은 대륙에 고속도로를 뚫어 북방루트 선점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봐도 이제는 나이갈 수 있는 곳은 강원도밖에 없어요. 물류 활성화가 이뤄지면 양양공항 활성화도 저절로 됩니다. 양양공항의 경우 꼭 사람 중심의 공항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류공항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림픽 관문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 경제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강원도는 경영활동을 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지역 경제인들의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도 경제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강원도 경제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최고 기업, 우리나라 최고 기업,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여주길 바랍니다.” 정리=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